

*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서로 한 데 묶어 비교할 필요없다
착실하게, 한 발 한발 듬직하게 나아가면
곧 나아갈 길이 생길 것이다.

- 108 자재어중에서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윤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열 한가지 행복

정 윤 (세원사 주지)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시작하는 자리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해의 바람을 간절하게 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가장 크고 간절한 소망으로 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복도 짓고 수행도 하고 남을 돕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불자님들처럼 소망을 품으셨을까요? 당신 개인을 위한 소망은 더이상 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한 소망은 품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소망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애심(慈愛心), 자심(慈心)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건네는 인사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며 동물 등 모든 생명체를 마치 외동자식을 보호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대해야 하니, 한해를 이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1년은 물론이요, 주변의 모든 생명의 1년이 무사하고 평화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절에 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

신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모두가 반갑고 기쁜 마음에 앞다투어 달려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궁금증을 부처님께 여쭙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친견하면 무엇을 여쭙보고 싶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깊은 밤이 되면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을 뵈러 내려옵니다. 세속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사원에서 부처님이 홀로 처소 밖을 경행 하실 때면, 찬란하게 빛을 내뿜으며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께 진리를 여쭙기 위해 기원정사를 밝히며 내려온다는 구절이 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늘의 신들이 여쭙다

그러던 어느 날, 천상의 신들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은 것을 여쭙었습니다.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면서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이 고귀한 행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숫타니파타 <행복경> 『불교성전』 (382쪽)

질문의 내용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하늘의 신들이나 인간들은 오직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안녕과 행복입니다. 안녕해야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다는 말은 안녕하다는 말입니다. 안녕이란 말은 편안하고 무탈한 상태를 말하고, 행복이란 길상의 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숫타니파타>의 이 경에서 '행복'은 망갈라(maṅgala)합니다. '망갈라'라는 말은 축복, 행운, 길상(吉祥), 길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말입니다. 천상의 신들이 이런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를 부처님에게 여쭙는 것으로 <행복경>은 시작합니다.

천상의 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 생에 선업을 지은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과보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에게 여쭙는 내용이 '행복'이라고 하니 욕심이 과한 것일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냥 평범한 행복이 아니라 '고귀한(마하) 행복'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질문에 11가지 '고귀한 행복'을 들려주십니다. '천상의 신으로 살아가는 것만도 더할 수 없는 행복이니 더 행복해지려는 마음은 탐욕이요, 그러니 그런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행복의 조건 11가지를 더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들려주는 열 한 가지 행복

그 11가지 고귀한 행복(축복)을 하나하나 들여보겠습니다.

- ① 어리석은 사람을 섬기지 않고/현명한 사람을 섬기며 예경할 만한 사람을 예경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② 적절한 곳에서 살고/일찍이 공덕을 쌓으며 자식을 바르게 확립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③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행을 철저히 지니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④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배우자와 자식을 돌보며 생업에 충실한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⑤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보호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⑥ 착하지 않은 법을 피하며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착한 법을 향해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⑦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时时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⑧ 인내하고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⑨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청정범행을 닦으며 사성제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⑩ 세상사에 부딪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

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⑪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고귀한 행복이라네.

숫타니파타 <행복경>『불교성전』(382~385쪽)

숫타니파타 <행복경>에서 말하는 열 한 가지 고귀한 행복은 재가불자로서 소박하고 즐겁게 가정을 꾸리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기술을 잘 익혀서 생계를 거뜬하게 꾸려나가는 일, 그래서 부모와 가족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는 일이 부처님도 인정하는 최상의 고귀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요 '무엇인가를 더 얻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니 그런 욕심을 내려놓도록 일러주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재가불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속에 살면서 가족을 거느리고 살아가간다면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행복경>을 읽자면 부처님도 인정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저 행복하게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가족들 누구나가 5계를 잘 지키는,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경>에서는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일, 고운 말을 쓰는 일,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일 등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현들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가 반듯하게 삶을 지키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공부를 해야 합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재가불자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 ⑦ 존경하고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알며时时각각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⑧ 인내하고 순응하며 출가자를 만나고 때에 맞춰 법을 담론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 ⑨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청정범행을 닦으며 사성제를 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이 세 가지 항목은 재가불자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출가한 구도자에게도 부처님이 거듭 실천하도록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열반(번뇌의 불이 꺼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경지)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원하는 최고의 행복이요, 고귀한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마음 편하고 패배하지 않고 안녕하는 것

그러면 이처럼 아홉 가지 항목을 일상에서 충실히 수행 실천하면 어떤 좋은 일이 내게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항목인 ⑩과 ⑪인 것입니다.

⑩ 세상에 부딪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 없고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 고귀한 행복이라네.

⑪ 이러한 것을 실천하면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하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고귀한 행복이라네.

아침에 눈을 뜨고 온종일 밖에서 뛰어다니며 일한다는 것은 세상에 부딪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내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마음을 다치고 힘이 들어 비틀거리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그러다가 어긋나는, 그릇된 잘못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경>의 ⑩번 항목은 말합니다. 앞의 아홉 가지 행복을 실현하면 마음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더이상 서글프지 않고 번뇌(티끌)가 없어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⑪의 내용은, 어떤 곳에서건 패배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안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와 남을 가르고 비교하고 분별하고 승패가 갈리고 갑과 을로 서열이 매겨지는 세상에서 이런 10가지 행복을 실현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머물든 편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일러주는 행복의 내용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고, 값비싼 자동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마음 가는대로 드라이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이런 사항들을 최고의 고귀한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잘 살펴서 행여 지나친 욕망이 담겨 있

지 않은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지 않은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법을 망각해서 ‘나만 왜 이런가’라며 어리석음에 빠져 지내고 있지 않은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재가자의 네 가지 행복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 네 가지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가자들에게 네 가지 행복이 있으니, 소유하는 행복,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티끌 없는 행복입니다. 첫째, 소유하는 행복이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재산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으로, 그 선남자는 ‘나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 손으로 땀 흘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둘째, 누리는 행복이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서 모든 재산으로 자신도 누리고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누리며 공덕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선남자는 ‘나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제 손으로 땀 흘려 정당하게 모은 재물을 누리며 공덕을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셋째, 빚 없는 행복이란, 선남자가 그 누구에게도 전혀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누구에게도 액수에 상관없이 전혀 빚을 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넷째, 티끌 없는 행복이란, 선남자가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니, 그는 ‘나는 몸과 입과 뜻으로 악업을 짓지 않아 티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얻습니다.

「양곳파라 니까야」(제4권)

숫타니파타 <행복경>에서 말하는 행복도 바로 이 네 가지 행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직업을 가지고 세간의 흐름에 맞춰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재가자들에게 행복은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은 언제나 번뇌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마음이 자유와 평화를 얻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부처님의 생각에 불자들은 동의하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정진합시다. ☸



세원소식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이장희	50,000	조명연	50,000	청소년교화연합회	1,000,000
박순애	30,000	유정현	1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0,000
권현지	20,000	유진스님	20,000		
최민기	30,000	이정옥	50,000		
이원호	50,000	이건림	20,000		
이주연	20,000	이경화	50,000		
부성보	50,000	임석진	50,000		
이용렬	5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강상훈	20,000				
강진아	20,000				
행복한약국	50,000				
박명호	30,000				
양정하	30,000				
유성윤	30,000				
오희순	30,000				
최부호	50,000				
김규태	2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유홍주	30,000				
권송은	20,000				
이영구	50,000				
최창	50,000				
한명현	30,000				
박인자	50,000	계	1,140,000	계	1,25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4년 1월 10일~2024년 2월 5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부담 지출입니다.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매주 화요일 :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검정고시반” “선도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사랑의교실” “검정고시학습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과학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청소년다도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웹툰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드림교실” “기타교실” “사계절안상맞춤교실” “연하장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유해환경감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